

2017년 5월 12일 금요일 흐림

신 동 석

경기도청 예산담당관실로부터 2017년도 경기도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 일정안내문자메시지를 받았으며 곧이어 참석확인전화도 수신한바 참석하기로 응답하였다. 워크숍장소는 용인시에 소재하고 있는 용인 엘리시안러닝센터이며 일정은 5.31(수)~6.1(목) 1박2일 개최예정이라는 내용이었다. 잠시 후 우연의 일치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주시 협의회 행정실장으로부터 2분기 정기회가 6월 1일 개최예정이라는 내용과 함께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상기 두 기관에서 실시하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데 일정이 겹쳐 다소 갈등이 생기지만 선약한 경기도주민예산위원회 워크숍 참석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하였다. 한편 오늘의 주요뉴스를 살펴보는 도중에 아주 획기적이고 놀라운 기사 내용을 읽어보았다.

지난 5월 9일 제19대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내용들이었다. 5월 10일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할 때부터 놀라움을 금치 못한바, 총리와 청와대비서실장 등의 인사와 함께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를 공개한 것이었다. 대통령인사와 관련하여 왈가왈부 할 것은 아니지만 작금의 한반도 안보상황 등을 고려해볼 때, 정보기관수장후보에 대한 프로필 등을 대통령 스스로 설명하면서 실명과 실재인물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일 수밖에 없다.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획기적이고 놀라운 일이다. 더욱이 향후 국정원장은 국내정보는 제외하고 북한 및 해외정보에만 주력할 것을 주문한 것은 대한민국의 안위가 심히 우려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개혁 및 국민통합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하지만 겨우 취임 2일 만에 상상을 초월하는 일방적이고 독재적인 발상의 인사 및 우선순위라고 할 수 없는 업무를 마구잡이로 지시하고 있다. 즉, 5.18기념행사시 임의 행진곡을 지정곡으로 부르게 하고 국정교과서를 폐지토록 하는 등 마치 1인 독재체제의 북한 김정은과 유사한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대로 개혁과 통합을 위해서는 이토록 서둘 이유가 없음에도 말이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당한 수사도 받지 못하면서 마치 대한민국을 농단한 것으로 치부하여 구속수감 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통합차원의 배려조차도 없는 것 같다.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상대가 하면 스캔들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기다렸다는 듯이 인사 및 업무 등을 앞 뒤 살펴볼 겨를 없이 서두르고 있는 것이 심히 걱정스런 이유다.

남북관계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바로 북한 당국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남한정부의 지금까지 행태였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여 정상회담까지 실천함으로써 남북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하지만 남한에서 지원해준 천문학적 금액을 기대와는 정반대로 북한은 미사일과 핵개발에 몰두하기에 여념이 없고, 전 세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도 때도 없이 핵과 미사일 발사에 혈안이 되어있다. 남북정상회담이 절실하긴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운운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통합은커녕 남남갈등 증폭만 초래할 것이다. 국난극복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북한을 방문 할 것이 아니라 김정은을 남한으로 초청하여 정상회담을 통해 자초지종을 따져야 할 때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분단국인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서라도 북한에 대한 최고수준의 압박기조유엔결의안 채택,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간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북한을 상대해야 할 지금이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강조하고 싶다.